

36호 2020년 11월 15일

발행인:안창섭 / 편집인:김동석 / 편집:박시은 / 편집디자인: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3002-9090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58 9060 0962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pto, Jakarta Pusat



산업부, 코로나19 타격 섬유산업 강화 전략 발표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동지

Vol. 36

CORONA - 19
VIRUS
PANDEMIC

PANDEMIC
CORONA - 19
PSBB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문대통령, 오늘 한·아세안 정상회의... ‘신남방 플러스’ 발표

나흘간 아세안 정상외교 돌입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화상 정상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나흘간의 아세안 정상외교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회의

문 대통령은 특히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3년 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신남방정책에 코로나19 등 변화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 협력 수요를 반영해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7대 전략 방향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에는 한·메콩 정상회의를, 14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을 소화한다.

15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서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산업부, 산업운영허가(IOMKI) 규칙 준수 기업 50% 불과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대규모사회적계약(PSBB)에도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산업활동 운영허가(IOMKI)를 받은 기업 중 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기업은 전체의 5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IOMKI를 받은 기업은 정기 보고서를 매주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5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산업장관은 “산업활동 IOMKI를 취득한 기업은 정기 보고서를 매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공단에서 위생 훈련이 철저히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하며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



산업부 국방·지역화국제산업엑스세크국의 도디 국장은 “기업이 정부에 매주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생활용품기업 유니레버 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의 리즈키 공급망 책임자는 “정부가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침을 자세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처음에는 보고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우 혼란스러웠다. 현재는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9월말 기준 1만 8,100개 이상에 IOMKI를 부여했다. 그러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약 180개사의 권한을 박탈했다.

산업부, 코로나19 타격 섬유산업 강화 전략 발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타격을 받은 국내 섬유·섬유제품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내세웠다.

지난 3일에 개최된 세미나에서 산업부 화학·의약·섬유산업협회의 무하마드 카얌 국장은 “섬유 로드맵 4.0을 도입했다”라며 “단기(3~5년), 중기(5~10년), 장기(10~15년) 세 가지 부분으로 분류해 산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단기 계획으로는 합성 섬유, 고품질의 원사, 특수 섬유, 산업용 섬유 개발에 주력한다.



중장기 계획에서는 여러 섬유를 이용한 산업 섬유 자재인 기술 섬유, 가죽 등의 고급 소재와 기능성 의류 개발을 추진한다.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통한

제조 등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인더스트리 4.0(제4차 산업혁명)’를 섬유·섬유제품산업에도 도입한다.

이 밖에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부문의 연동을 강화하

고 국내 원료 사용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섬유·섬유제품 산업이 2015~2035년 장기 계획을 담은 정부의 산업 개발 마스터 플랜(RIPIN) 중 하나이며, 인더스트리 4.0의 실현을 위한 로드맵 ‘메이킹 인도네시아 4.0’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아마드 사무차관은 “2019년 시점에서 섬유·섬유제품 산업 수출액이 129억 달러에 달했으며, 374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보였다”며 “섬유산업은 국내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크고, 강력한 구조를 가진 노동집약형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자카르타경제신문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내년 최저임금 자카르타는 올리고 서부자바는 안 올리고

자카르타 최저임금 3.27% 인상 440만 루피아로... 임금 동결하려면 사유서 제출해야
서부자바주, 최저임금 동결... 중부자바, 족자카르타, 동부자바 주 등 최저임금 인상

인도네시아중앙정부가 2021년 지역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회람을 전국의 지방정부에 보낸 가운데, 수도 자카르타와 중부자바, 동부자바, 족자카르타 주 등 일부 지방정부들은 내년엔 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반면, 서부자바 주 등 다른 지방정부는 정부 방침에 맞춰 내년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다 파우지아 노동장관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황에 대응해 내년엔 임금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부규정(PP) no.78/2015에 의거해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기초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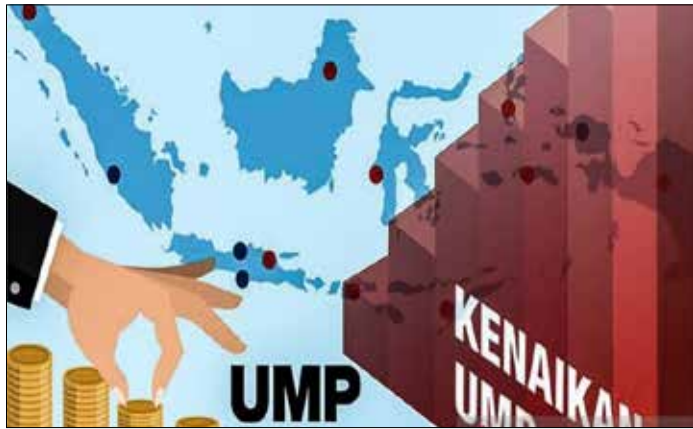
이다 노동장관은 지난 10월 26일 지방정부에 회람을 보내, 2021년 지역최저임금을 2020년과 동일하게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도 노동개혁을 경제 우선 순위로 삼았고, 국회는 투자를 늘리기 위한 옴니버스법(일명 고용촉진법)을 승인했다.

자카르타, 일부 업종에 대해 지역최저임금 인상

자카르타 주정부는 일부 업종에 대해 내년 지역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아니스 바스웨단 주지사는 지난 10월 31일 배포한 보도문에서,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은 업종에 대해, 2021년 자카르타 지역최저임금을



3.27% 인상해 4,416,186루피아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자카르타 UMP는 전년보다 8.51% 오른 4,276,349루피아였다.

한편 아니스 주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업종은 지역노동사무소에 최저임금 인상 유보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부자바 주 내년 임금 동결 결정

인도네시아에서 산업단지가 많이 입주해 있는 서부자바 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받았으며 내년엔 임금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4일 자카르타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는 관내 기업 2,000개 이상이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고,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서부자바 주 노동국 라흐맛 포픽 가르사디 국장은 지난 10월까지 460개 기업이 공식적으로 직원을 해고했고, 앞으로 감원 계획을 가진 기업

도 많다고 많으며, 특히 중간 규모의 제조업체들이 직원을 많이 해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근로자사회보장보험(BPJS Ketenagakerjaan) 자료를 인용, 관내에서 19,089명이 공식적으로 해고됐다고 말했다.

라흐맛 국장은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크거나 생산품의 수출의존도가 큰 업체들이 특히 타격을 입었고, 자동차산업도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리드완 주지사는 자바섬에 있는 생산시설의 대부분은 서부자바 주와 반폰 주 지역에 있어서 두 지역이 팬데믹 피해가 크며, 특히 인도네시아 공장의 60%가 서부자바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직원을 해고하는 기업이 늘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부자바 주 내년 임금 3.71% 인상 결정

기난자르 뿌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가 2021년 지역최저임금(UMP)을 3.27% 인상해 179만 루피아(약 14만 원)로 조정하고, 특히 반자르느가라와 워노기리 지역은

3.71% 인상해 197만 루피아(약16만 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고 1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중부자바 주정부는 임금에 관한 정부규정(PP) No. 78/2015, 노조,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족자카르타 주는 2021년 지역최저임금을 3.54% 인상해 1,765,000루피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동부자바 주는 2021년 지역최저임금을 5.65% 인상해 1,868,777루피아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경영자총회, 노동부의 임금 동결 결정 지지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모든 산업분야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었다며, 2021년 임금 동결을 결정한 중앙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에 -5.32%, 3분기에

-3.49%를 기록했다.

국가임금위원회의 야디 마푸드 부회장은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미숙련 비혼 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이고 경력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21년 최저임금에 관한 노사정협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졌다는 소문을 일축하고, 노사정이 내년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임금 동결에 반발하지만 노동계는 옴니버스법 철회와 동시에 내년 최저임금 8% 인상을 요구한다.

노동계는 에너지, 전자, 제약 등 11개 업종은 코로나19 타격을 입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임금 동결을 선언한 노동부장관을 비난하고, 대통령에게 노동부장관 결정을 철회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월 한 달 동안 전국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문에서 12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카르타 노동국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만 노동자 162,416명이 해고됐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 선정



우리은행 인도네시아 해외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이 인도네시아 금융전문지 인포뱅크

매거진의 2020년 은행평가에서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으로 선정됐다고 우리은행이 11일 밝혔다.

사진은 ‘25년 연속 최우수 은행’ 트로피를 든 최정훈 우리소다라은행 법인장.

우리은행 제공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국내복귀를 지원합니다.



국내복귀기업 지원사항

입지·설비 보조금

- ✓ 자가의 9~50%
- ✓ 설비금액의 6~34% (국비 100억 한도)



세제지원

- ✓ 법인세 감면: 최대 7년간 50~100%
- ✓ 관세 감면: 설비도입시 최대 100%

인력 고용 지원

- ✓ 외국인 고용허가제 (E-7, E-9 발급지원)
- ✓ 병역지정업체 선정 가점



고용보조금

- ✓ 1인당 2년간 최대 720만원 / 연 (최대 100명 한도)

스마트공장 및 R&D

-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50% 등)
- ✓ 산업부 R&D사업 우대지원



지재권 지원

- ✓ 특허청 IP전략 지원사업 우대지원

금융 지원

- ✓ 시설투자 자금 지원
- ✓ 국내사업장 시설자금 보증·보험지원



구조조정컨설팅

- ✓ 구조조정컨설팅 일정 및 비용 일부 지원

국내복귀기업 선정요건

- 2년 이상 해외 사업장 운영**
해외사업장에서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또는 산업발전법상 ‘지식서비스산업’을 2년 이상 운영
- 해외 및 국내사업장 실질적 지배**
해외사업장과 국내 신·중설 사업장을 운영한 신청기업의 실질적 지배자 (지분30% 이상 보유 등)가 동일할 것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거나 생산량을 축소(25% 이상)할 것 (단, 기존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해외사업장 유지 가능)
- 국내복귀시 해외사업장과 동일업종 운영**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국내 신·중설하여 운영할 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 소분류상 동일할 것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 궁금하신가요?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021-574-1522(권 세영 부관장)
seyoung@kotra.or.kr

구조조정컨설팅 지원사업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 총 컨설팅 비용의 30%~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 지원대상 서비스 범위

① 구조조정모형 제안 ② 축소대형 ③ 청산대형 ④ 매각 및 지분양도 대형

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①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 ②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예정인 중소·중견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제외, 신청 국내 모기업이 존재해야 함)

* 연동상시(컨설팅) 운영 완료 이전에 신청 / 연간 예산 한도 내 지원

진행절차

사업 신청 →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완료 평가 → 컨설팅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증명서류를 KOTRA 관할 무역관으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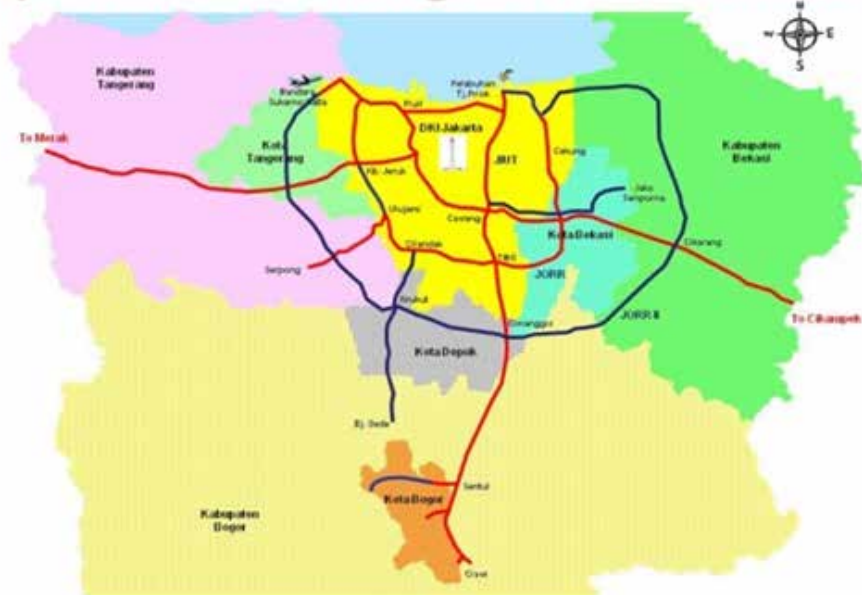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수도권 6개 유료도로 소구간 연말 이전 가동

Investor Jalan Tol Jabodetabek Siap Membantu Mengurai Kemacetan DKI



▲ 자카르타 주요 유료도로 및 건설 계획도

자카르타-보고르-데벡-팡그랑-버카시 등 수도권(Jabodetabek)의 6개 유료도로 소구간이 올해 연말 이전에 완공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 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가동되는 구간은 제2 자카르타외부순환도로(JORR2) 가운데 보고르 찰망기스-찌비퐁 구간의 찰망기스-자파카르야 소구간

(3.17km)으로 이달 10일 개통할 예정이다.

이어 JORR2 찰네레~서르벵 구간의 서르벵~빠물랑 소구간(6.5km)은 11월 중, 보고르 순환도로(BORR)의 야스민 분기점~까유마니스 소구간(3km)은 오는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찌비퐁~찰린찡 구간의 찰비퐁~가부스인다 소구간(13.5km)과 쯡까랭~꾼찌란

소구간(14.19km)은 각각 12월 중, 베짜카유 구간의 자파삼뿌르나~까유링인 소구간(5.71km)은 12월 중 완공할 예정이다.

공공사업국민주택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11개 구간 및 소구간의 유료도로가 오는 12월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정부, 코로나19 경기부양 예산 695조 2천억 루피아로 수정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양책 예산을 695조 2천억 루피아로 수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국부 펀드와 코로나19 백신 조달, 농업진흥지역 '푸드 에스테이트' 개발 사업을 위한 자금이 포함됐다.

5일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 국부 펀드용으로 15조 루피아, ◇ 백신 조달에 16조 루피아, ◇ 온라인 수업용 인터넷 요금 보조금 5조 5천억 루피아, ◇ 국립학교 교원 지원에 5조 2백억 루피아, ◇ 푸드·부동산

사업에 4조 루피아, ◇ 국영 제약 지주회사 바이오 파르마(PT Bio Farma)에 2조 루피아 자본 추가 투입을 위해 수정됐다고 밝혔다.

재무부 예산국의 아스코라니 국장은 "정부는 올해 국내 경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에서 최대한의 지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지 9개월 만에 경기 부양

인도네시아 "코로나 재정 압박" ... 호주서 1조2천억원 빌려

외부서 잇단 자금 수혈... 디스가 총리 5천억 차관 선물도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호주에서 15억 호주달러(1조2천억원)를 빌리는 차관 계약에 서명했다.

12일 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스리 물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우리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매우 큰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적자가 커지고 있다"며 "15억 호주달러를 빌려준 호주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그는 "호주에서 제공한 차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을 받은 보건 분야, 비즈니스, 사회 보호 계층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것"이라며 "특히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쉬 프라이텐버그 호주 재무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양



▲ 자카르타 시내 전경 [AFP=연합뉴스]

국 관계는 무역과 경제 그 이상의 것이며 어려운 시기를 거치며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호주가 제공한 차관을 15년에 걸쳐 상환하게 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대응과 경기 부양을 위해 695조2천억 루피아(54조9천억원)의 재정 투입을 결정, 올해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34%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세계은행, 이슬람개발은행,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BD)에서 외부자금을 수혈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지난달 20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500억엔(5천400억원)의 저금리 차관을 지원하겠다고 선물을 내밀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채가 계속 늘고 있지만 "아직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3천770명이 추가돼 누적 44만8천여명이고, 사망자는 누적 1만4천836명이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김재훈의 세무상식

일자리 창출 법 (UU No.11 /2020 일명 Omnibus Law) 중 조세법규



김재훈 대표

2020년 10월 5일 RANCANGAN UNDANG-UNDANG TENTANG CIPTA KERJA (일자리 창출법안 RUU)이 국회를 통과한 후 마침내 정부는 2020년 11월 2일 법령 11호 (UU No.11 /2020)로 제정하였다.

이번에 공표된 일자리 창출법(UU Cipta Kerja)은 15개장과 18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187페이지에 달한다. 조세와 관련된 규정은 VI장 Kemudahan Berusaha 의 Part 7 Bagian Ketujuh Perpajakan에 포함되어 있다.

2020년 법령 제 11호의 핵심은 여러 법률의 다양한 문제를 하나의 법률인 UU No.11에 개정하여 종합적으로 모아 놓았다는 것이다.

그 중 조세와 관련한 규정은 제 111조부터 114조까지로 나누어진 4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제 111조에는 소득세법(PPH), 112조에는 부가세법(PPN), 113조에는 국세기본법(KUP)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어 있고, 제 114조는 지방세법을 포함하고 있다.

제 111조 소득세법 (UU PPH) 일부 개정 배당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일부 비과세 규정이 개정/추가된 되었다.

1. 배당금 비과세

- 개인 또는 법인 납세자가 획득 한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건은 배당금이 인도네시아에 투자된다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 저금리 소득 세율

- 소득세에 관한 제 26 조, (1b)항이 추가되었다.

부채 상환 보증과 관련된 보험료, 할인 및 보상을 포함하여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의 총액의 20% 비율은 정부 규정 (PP)에 의해 감소 될 수 있다.

3. 인도네시아 시민 및 외국인에 대한 과세 조건

- 이 조항은 소득세 법 제 2 조 (2)항 국내 납세의무자와 2조(4)항 국외 납세 의무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다.

제 2조 (2항) 국내 납세의무자란

1. 인도네시아에 거주
2. 인도네시아에서 12개월 동안 183일 이상 체류
3. 과세기간내 인도네시아 거주하거나 거주할 의사(Niat)이 있는 경우”로 변경되었다.

었다.

제2조(4)항 국외 납세의무자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외 납세의무자란

- a.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
- b. 12개월중 183일 이상 인도네시아에 체류하지 않는 외국인
- c. 12개월중 183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인도네시아인으로 다음을 충족하는 자

1. 주거지
2. 주요활동의 중심지
3. 일상적 거소
4. 과세대상의 지위
5. 기타 특정 요건으로 재무부장관 규정에 정함

d. 법인은 인도네시아에 설립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은 법인으로서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하거나 활동을 하는 법인

4. 외국인 비과세 규정

이는 국내 과세 대상 외국인이 규정에 따른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세 대상에서 면제되거나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됨을 의미한다.

소득세법 제 4 조에 추가 된 규정이다.

제 4 조 (1a)에서 국내 납세자가 된 외국인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받거나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PPH의 적용을 받는다.

특정 기술 보유

국내 납세자가 된 시점부터 계산된 과세 연도 4년 동안 유효

단, 인도네시아와 국가 간의 이중 과세 방지 및 회피 협정 (P3B)을 적용하는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5. Haji 금융상품등에 관한 비과세 추가 소득세에 관한 제 4 조(3)항 o와 p 조항이 추가되었다.

“o. Haji행정원가 (BPPI) 및 / 또는 특별 BPPI를 위해 예치된 자금 및 특정 분야 또는 금융 상품에서 Haji 금융 개발로 인한 수입은 Badan Pengelola Keuangan Haji (BPKH)에 의해 수령되며, 그 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p. 잉여금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대 4년 이내에 사회 및 종교 시설 및 기반 시설의 형태로 재투자 조항은 재무부 장관의 규정에 정한다.”

제 112조 부가세법(UU PPN) 일부 개정

중전 부가세과세등록(PKP)이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 생산이전 단계에서 발생된 매입부가세등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에 관해서 상당히 완화되었고, 소매업 유통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규정도 추가되었다.

1. 매입 부가세 공제에 대한 완화

생산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 부가세 과세등록(PKP) 이전에 발생된 매입부가세 등에 전액 불공제 되었으나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2a)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확정되기 전으로서 과세 재화 및 과세 영역의 획득,과세 재화수입, 과세지역 밖으로부터 과세 지역내로의 무체 과세 재화의 이용 또는 과세 영역의 이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에 따른 공제 요건을 준수하는 한 공제될 수 있다”

“(9a)PKP로 확인되기 전에 BKP / JKP를 획득하거나 영외에서 무형 BKP 또는 JKP를 활용하여 징수해야 하는 매입부가세의 80%를 매출부가세에 공제 할 수 있다.

2. 매입 세액 공제 기간

“(9)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때의 납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 납세기간 내에 공제 가능한데, 비용으로 처리되었거나 과세 재화 또는 과세 영역의 취득 가액으로 자본화되지 아니 하였어야 하고 부가가치세 및 사치품판매세법과 동법의 공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구매자의 신원이 없는 세금 계산서 작성 규정 추가

소매상 PKP의 세금 계산서 작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 13 조 (5a)항으로 추가되었다.

(5a) PKP 소매상은 과세 상품 (BKP) 및 / 또는 과세 서비스 (JKP)를 최종 소비자 특성을 가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구매자의 신원과 판매자의 이름 및 서명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III. 제 113조 국세기본법(KUP) 일부 개정

1. 수정 신고로 인하여 부족 납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자 경감

- 기준금리에 5%를 더한 다음 12로 나누어 월 이자율 산출 (중전 월 2%)

2.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과소 납부세액의 100% 부과

중전 150%)

3. 납부기한을 초과한 지연 납부에 대한 이자 경감

- 기준금리에 5%를 더한 다음 12로 나누어 월 이자율 산출 (중전 월 2%)

4. 과납 세금에 대한 환급이 한달이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환급지연 이자를 기준금리에 12로 나눈 값을 월 이자율로 적용한다 (중전 월 2%)

5. 추정결정서(SKPKB)에 의해 확정된 과부족 세금에 대한 이자율은 기준금리에 15%를 더한 후 12개월로 나눈 이자율을 월 이자율로 계산한다. (중전 월 2%)

4.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 가산세

공급 가액 (DPP)의 1%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전 2%)

5. 조사 종료

국가 수입의 이익을 위해, 검찰 총장은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 요청서의 일자로부터 6(육)개월 이내에 조세 관련 형사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상기의 경우 조세 관련 형사 조사의 중지는 납세 의무자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과 그에 대한 행정 벌과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 부과되는 행정 벌과금은 미지급 또는 부분 지급한 과세 총액, 또는 잘못 지급된 환급세액 총액의 최대 3배에 달한다. (중전 최대 4배)

상기 관련 상세한 법 조문은 11월말에 발간된 예정인 알기 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20년판에 번역본과 함께 발간될 예정이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f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한은 “아세안 5개국 재정 · 경상수지 안정적…韓수출에 긍정적”



▲아세안 5개국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사태 속 아세안 5개국(인도네시아 · 말레이시아 · 태국 · 필리핀 · 베트남)의 재정 · 경상

수지 등이 비교적 안정된 만큼 향후 회복기에 한국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아 · 태 경제팀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아세안 5개국 거시 불균형 확대 가능성’ 보

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아세안 재정수지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 확

대로 올해 적자 폭이 늘고 상당 기간 적자 기조를 유지하겠지만, 다른 신흥국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대외 안전성 측면을 봐도, 코로나19 확산 이후 경상수지 악화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에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자본 유 · 출입도 4월 이후 안정세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아세안 5개국의 재정 · 대외부문 상황이 다소 악화하더라도 양호한 기초 경제 여건에 비춰 대체로 흡수 가능한 수준”이라며 “경기 회복이 본격화하면 빠르게 이전 수준의 성장 모멘텀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나라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RONA-19 함께 극복합시다 !

LUMICA

<http://www.lumica.co.jp>

POWER 6 (CLO₂)로 나만의 안전공간 을 만들자!

POWER 6(CLO₂) 주변
2~3m 이내 바이러스 퇴치기능

사용방법



약간의 힘을 주면
딱 소리가 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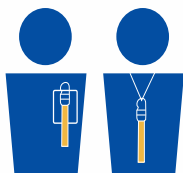


흔들어주면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약 2~3주정도 사용하면
다시 흰색으로
바뀝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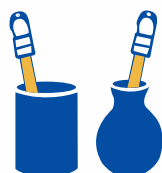


Rp 250,000
1pack: 10ea

활용방법



호주머니나
목걸이로
착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연필꽂이등에
꽂아 두시면
편리합니다.

■ 바이러스와 세균 제거, 냄새(악취) 제거

■ 사용기간

약 2~3주 사용가능하며
햇빛, 바림이 부는 곳 : 2주
그늘진 곳 : 3주 가능

■ 예방 효과

16~20M² COVER (전후좌우 2미터)

■ 이런 곳에 효과 있습니다

1. 끈에 달아 호주머니나 목에 착용
2. 현지인 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 안
3. 사무실, 병원 입원실
4. 집안 도우미와 공유하는 집안 거실
5. 식당의 각 테이블
6. 기타 코로나에 취약한 장소
7. 세균에 의한 냄새 제거 탁월
화장실, 쓰레기장, 신발장, 낚시 박스, 애완동물

■ 제품구성 및 특징

- 1, 1PACK : 10EA
- 2, 미국 FDA 기준 CLO₂ 기준 0.05ppm
LUMICA : **0.03ppm**

LUMICA LUMICA CORPORATION

- JAPAN / LUMICA CORPORATION
- SPAIN / LUMICA CORPORATION SUCURSAL EN ESPANA
- USA / LUMICA USA, INC
- CHINA / LUMICA LUMINOUS
- INDONESIA / PT. LUMICA INDONESIA

구매처

땅그랑, 특판 : 0815 1066 5868 (MRS. CHA)
자 카 르 타 : 0838 7371 3477 (MS. HESKY)
0815 1145 3268 (MR. LEE)
스 마 랑 : 0813 2710 4200 (MS. SUSI)
족 자, 솔 로 : 0812 8075 4080 (MS. SON)



인도네시아 78세-17세 부부, 혼인 22일째에 파경



▲ 인도네시아 78세-17세 부부, 혼인 22일째에 파경[데텍뉴스 · 재판매 및 DB 금지]

인도네시아에서 61세의 나이 차를 뛰어넘어 결혼한 78세 남성과 17세 여성의 결혼 생활이 22일째에 파경을 맞았다.

3일 트리뷴뉴스 등에 따르면 서부자바주 수방에서 78세 노인 아바 사르나와 17세 소녀 노니 나비타가 지난달 9일 성대한 결혼식을 치렀다.

아바는 아내가 7년 전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았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생 노니에게 반해 청혼했고, 노니가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혼인이 성사됐다.

아바는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 측에 현금 1천만 루피아(78만원)와 금 11g, 새 오토바이를 사줬다.

노니는 “아바가 매일 농기계에 쓸 기름을 사러 우리 집에 왔고, 자주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가까워졌다. 그는 참 다정하다”며 “꼭 그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인터뷰에

서 밝혔다.

노니의 부모는 고등학교부터 마쳐야 한다고 결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딸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은 SNS에서 화제가 됐고, 이후 많은 인도네시아 매체에 보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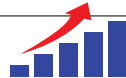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지 22일째인 지난달 30일 아바는 노니에게 이혼서류를 보내고 파경을 선언했다.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노니의 가족은 “결혼 후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혼이 이뤄졌다”며 “신랑 측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노니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나왔지만, 노니의 가족은 이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어느 일간지의 자살을 보며

유타(Utah)주가 45번째로 미합중국에 편입된 것이 1896년이다. 이 보다 25년 전인 1871년에 처음 생긴 일간신문 솔트레이크 트리뷴(The Salt Lake Tribune)이 150년 만에 2021년부터 일간(日刊)에서 주간(週刊)으로 바꾼다. 트리뷴은 호민관이나 민권 옹호자, 민중 지도자란 뜻이지만 언제부턴가 신문 이름으로 써서 민중을 대변하고 민권을 옹호하며 민중을 밝히는 햇볕 같은 이름으로 자리 잡았다.

몰몬교로 잘 알려진 후기성도(LDS) 교도들이 핍박속에서 네브래스카주 오마하를 떠나 이곳 솔트레이크시티에 집을 풀고 눈물과 고통, 굶주림 속에서 출발한 것이 1847년이다. 그들은 신도시 건설을 위해 바둑판처럼 터를 닦고 길을 내어 개척을 하였다. 그들이 운영하던 데저렛 뉴스(Deseret News)가 2019년에 미국세법 501(c)(3)항의 면세조직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는 신문사가 비영리 조직이 되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자가 세금을 내는 대신에 기부를 하여 신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데저렛 뉴스 또한 2021년부터 일간에서 주간(週刊)으로 전환한다. 디지털 판으로는 뉴스 속보를 포함하여 일간을 운영한다. 그러나 일간지 인쇄는 하지 않는다. 기존의 이용자들은 앱을 깔거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해 받아보게 된다. 왜 그럴까?

미국의 신문사들은 디지털 시대에 광고 수익이 구글, 페이스북, 심지어 Craigslist 에까지 쏠려 돈을 벌기가 어렵게 되었다. 디지털에 익숙한 사람들은 글을 읽기 보다는 소리나 동영상 등을 듣고 보는 것이 빠르고 쉽다. 종이 신문이 그 신속하고 편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다. 종이 신문의 배달 또한 고역(苦役)이다. 특히나 ‘코로나-19’가

결정타를 날렸다. 트리뷴과 데저렛뉴스는 68년간 파트너십을 맺고 콘텐츠는 경쟁하되 제작, 인쇄, 배포 및 광고를 서로 함께 해왔다. 광고와 구독료 등 수익이 자꾸 줄어들어 공동운영하던 Utah Media Group을 지탱하지 못하고 폐지한다. 당연히 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이를 예상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나올 주간지(週刊誌)는 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획, 특집, 심층 조사 자료로 채울 것이라 한다.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니다. 나는 틈틈이 ‘ADADA(아다다)로 잘 살기’란 주제로 특강을 해 왔다. ‘백지 아다다’는 물론 아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교차하고 혼재하는 세상에서 이 둘을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 인간은 아날로그다. 음식을 씹어 삼켜서 소화시키고 적당히 몸을 움직여 일하고 땀을 흘려야 건강에 좋다. 알약 하나로 건강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을 이용하지 않으면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 당장 휴대폰과 신용카드가 없다면 엄청 불편할 것이다. 설령 내가 불편하지 않더라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된다. 내가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디지털 없이 어떻게 입수할까? 내가 저장해둔 지식과 정보를 아날로그로 담아두려면 도서관이 몇 개가 있어도 모자랄 것이다. 이미 신문을 PDF판으로 보내주는 곳이 많다. 디지털 판을 링크만 보내주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고 듣는다. 앱으로도 본다. 종이 신문을 읽어야 맞고 만년필로 써야 글이 된다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읽지 않고 들려주는 오디오북에다 생생한 현장의 동영상도 날아오고 기사도 알아서 써 주는 인공지능 기자가 있는 판에 배달도 어려운 종이신문이 어찌 하면 살아남을까? 신문사의 조직을 줄이지만 말고 디지털 플랫폼



조기조 박사

폼을 강화해야 한다. 수익은 신문의 정보와 지식으로 버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기사와 행사 등 정보를 디지털로 바꾸어 빅데이터를 만들고 분석하면 미래를 예측가능한 정보가 나올 것이다.

데이터를 모아 의사결정에 활용한 정보를 만들고 정보들로부터 패턴을 추출하면 지식이 된다. 이 지식들을 잘 활용해 인간에 이롭게 하는 것이 지혜라 한다. 정보, 지식, 지혜도 다 신문사가 보유한 데이터에서 나오는 것이다. 맞춤 정보와 주문형 지식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것이다. 개인들에게 유용한 지식(강의)도 있다. 유용하면 찾는다. 우선, 수십 년간 축적한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술을 익힐 일이다. 로마의 데이터는 로마신문이 다 가지고 있지 않은가? 종이신문은 부수나 쪽수를 줄이고 격일로 발행할 수도 있겠지만 종이만을 고집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내용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에도 알면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 기술이 쏟아지고 있지 않은가? 제공되는 정보량으로 볼 때 싼 매체가 신문이라고 해서 비싸게 먹은 아니지 않은가?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코로나19 관련 제품 국내기준(SNI) 취득 소요기간 단축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기관(BSN)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백신 관련 제품의 국가표준(SNI) 취득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방침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SNI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7개월~1년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 대책 관련 제품은 약 33일 안에 받을 수 있다.

드퍽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가표준기관의 자키야 부장(표준화 적용·적성 평가 담당)



은 이날 세미나에서 “취득기간이 단축되는 품목은 의료용 마스크와 방호복 등이다”라고 말했다.

자키야 부장은 “취득기간을 크게 단축하되, 취득에 필요한 과정과 조건은 지금까지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로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mm
25mm
3. 35mm Spandek
920mm
35mm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420mm
110mm
5. Boltless-Seaming Type 55mm
736mm
55mm
6. Genteng Metal (기와)
82mm
35mm
20mm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인니 강경파 이슬람 지도자 귀국에 수천 명 운집 ... 공항 마비

‘음란 채팅’ 혐의 시하브 돌아와 이슬람 사회 급진화 우려



▲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가득 채운 채운 지지자들[AFP=연합뉴스]

10일 인도네시아의 강경파 이슬람 지도자가 3년여 만에 귀국하자 흰옷을 입은 수천 명의 지지자가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운집하면서 공항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인도네시아의 강경 이슬람 단체인 이슬람수호전선(FPI)을 이끌던 리지크 시하브는

2017년 4월부터 3년 넘게 사우디아라비아에 머물다 이날 귀국했다.

시하브는 2016년 하반기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후) 당시 자카르타 주지사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시하브는 아후이 대중연설

중 이슬람교와 관련해 신성모독을 했으니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무슬림 20만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소집하는 등 중국계 기독교도인 아후의 재선을 막기 위해 앞장섰다.

아후 전 시장이 2017년 5월 실형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시하브는 무슬림 사이에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시하브가 외간 여성과 음란 사진·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부상하자 경찰은 시하브를 반(反) 포르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다.

이에 시하브는 ‘아후 측의 모함’이라고 주장했고, 2018년 인도네시아 경찰이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지만, 지금까지 사우디에 머물렀다.

시하브의 사우디 생활을 두고 스스로 망명 생활을 했다는 보도와 사우디 정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출국금지 했

었다는 보도가 엇갈렸다.

사우디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는 시하브가 최근 사우디에서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고, 마흐푸드 정치법률안보 조정 장관은 “우리는 그의 귀국을 막은 적이 없고, 귀국은 사우디 정부와 시하브 사이의 일”이라고 밝혔다.

시하브가 이날 도착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흰옷을 입은 지지자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었다. 군·경 1천500명 이상이 공항 안팎에 배치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지지자 상당수는 전날 밤부

터 공항에서 밤을 새우며 함께 기도하며 그를 기다렸고, 또 다른 상당수는 공항을 오는 고속도로를 가득 메우고 행진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항공사들은 어쩔 수 없이 항공편 이착륙 일정을 조정했고, 승객들은 2~3시간씩 기다려야 했다.

지지자들은 시하브의 귀국을 계기로 “무슬림이 더 단결해야 한다”고 다짐하는 반면 다른 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사회 급진화를 걱정하는 시선을 보였다.

인도네시아는 본래 온건하고 관용적인 이슬람 국가로 분류됐으나, 수년 전부터 원리주의의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카르타, 마스크 착용 준수율 70%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특별주는 8일 인도네시아 대학교 공중보건학부가 집계한 조사에서 주민들의 위생규율 준수 비율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비율은 70%, 거리 두기는 60%였다. 10월 19일부터 1주일 마다

준수율을 측정했다. 지난 8일 준수 비율은 2일 시점에 비해 상승하고 있지만 지난달 19일 보다 5~10포인트 떨어졌다.

자카르타특별주는 8일 대규모 사회적제약(PSBB) 전환기를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감염자 수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 12월 6일까지 다시 연장할 계획이다.

아니스 주지사는 PSBB 연장



에 대해 “감염자가 증가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고 말했다.

7일 기준 감염자 수는 8,026명으로 10월 24일 기준 1만 2,481명에서 감소했다. 누적 감염자 수의 증가율은 9월 말부터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망률도 9월 26일 시점의 2.4%에서 2.1%로 하락했다.

산업부,

제조업 원료 수입액 내년에는 15% 감축 목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2021년 국내 제조업의 원료와 중간재 수입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수입량이 많은 업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 목표인 35% 감축에 기여한다.

산업부 아마드 사무차관은

7일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원료 중 하나는 화학 물질이다”라며 “기계와 전자 전기 수입 자본재를 국산품으로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마드 사무차관은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타격을 받은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제조업 공장 가동률이 코로나19 전에는 평균 70%였으나 현재 56%까지 감소했다”라고 덧붙였다

**도서관/인쇄
광 개 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털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명함 : 컴팩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카다록 / 도서관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제작 문의
021-3002-9087
0858-9060-0962
pt.kwanggaeto@gmail.com
khong3000@gmail.com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더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아웃도어 시장 보복 소비 ‘폭발’



10월 매출 코로나 없던 작년보다 30% 이상 폭증
9월보다 50~60% 신장 짓눌렸던 소비 수직 상승
브랜드 밸류 따라 차이, 11월 매출도 큰 폭 상승 기대
코로나 충격으로 절단났던 내수 패션 경기가 아웃도어를 필두로 보복 소비가 폭발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으로 9월에 더욱 주저앉았던 내수 패션 경기가 10월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와 산과 야외를 찾는 행락철을 맞아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짓눌

렸던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미는 역시 아웃도어가 장식하고 있다.

초일류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노스페이스의 영원 아웃도어와 K2 등 상위 브랜드는 10월 매출이 코로나와 무관했던 작년 10월보다 무려 30%나 고공행진 했다.

지난 9월 대비해서도 50~60% 수직 상승했다.

이들 브랜드 외에 상당수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들도 상승 폭이 9월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상승 폭이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만 10월의 고공행진이 11월에도 계속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 추세로는 11월 날씨가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많고 기온이 급강하는 날도 있어 아웃도어를 비롯한 패딩 재킷 수요가 순조로운 것으로 전망하는 추세다.

다만 코로나19가 다시 재발 속도가 빨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모처럼 달아오른 아웃도어 경기마저 다시 냉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무튼 백화점 내 아웃도어 매장과 가두매장, 아웃렛 등 아웃도어 시장은 오랜만에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 모처럼 내수 패션 업계에 시름을 달래주고 있다.

한편 내수 패션 업체 중 패션과 아웃도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명 회사들의 주가가 지난 10월 중순부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보복 소비 폭발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밀 조사해 덤핑 마진율을 어느 정도 부과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소자 측은 중국산 FDY 덤핑 마진율을 20% 내외로 바라보고 있지만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는 예단할 수 없으며 만약 10% 이내로 덤핑 마진이 결정될 경우 국산 가격과 비교해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화섬협회의 FDY 반덤핑 제소는 중국산에 국한하고 있으나 중국산 덤핑 마진율이 고율로 판정된 후 아직은 수입량이 적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산이 치고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풍선효과에 대비해 중국 외 지역 수입도 함께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니트 의류 수출 바닥 쳤다

코로나로 멈춰선 미국 의류 수요 다시 부활
면·혼방 니트 오더 쇄도 해외 소싱공장 풀 캐퍼 표정 관리
美 의류 소비 증가, 중국으로 갔던 원단 한국·동남아로 회귀
화섬 우분 직물은 아직 냉골, 스포츠·아웃도어 내년 회복 낙관

21세기 최악의 재앙인 코로나19로 인간의 의생활 욕망을 장기간 억제할 수는 없다. 수요와 공급망을 수개월 붕괴시킬 수는 있어도 1년 이상 봉쇄할 수는 없다.

세계 최대 의류 소비시장인 미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800만 명에 달하고 사망자가 22만 명에 달하는 와중에도 오프라인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돌아가 의류 패션 수요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월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한 이후 전통과 규모를 자랑하는 수많은 미국 내 백화점과 대형 체인 스토어가 문 닫는 고통을 겪은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을 찾아 의류 매출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의류 매출이 전월보다 11%나 증가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청신호다.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애슬레저 홈웨어·라운지웨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원인이다. 캐주얼을 비롯한 스포츠웨어 등도 덩달아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

아이들의 침장용 면 프린트 원단의 경우 오더 단위는 작지만 오더가 몰려 국내 전문 업체는 내년 6월까지 오더를 풀 부킹 해놓고 있다.

불과 두 달 전까지 국내 벤더들의 해외 소싱 공장은 마스크와 방호복에 의존하며 파리 날렸지만 최근 들어 오더가 꽉 찼다.

코로나19로 수출대전 결제를 기피하고 오더를 캔슬했던 고약한 바이어는 캐퍼를 못 잡아 안달이 났다.

의류 벤더들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중남미 공장도 캐퍼 여유가 없다.

미국 바이어들의 의류 오더가 다시 재개되고 있는 것이다.

올 장사는 이미 거의 마감됐지만 내년 S/S 오더부터 시작해 풀 윈터 오더는 다시 정상으로 회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홈웨어·라운지웨어뿐 아니라 아웃

도어 오더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의류 벤더들의 활기뿐 아니다. 면·면 혼방 니트 원단 오더가 최근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오더 재개뿐 아니라 그동안 중국으로 갔던 면 니트와 면혼방 니트 직물 상담이 크게 쇄도하고 있다.

미국 바이어들이 중국산 면 니트 직물 소재를 기피하면서 한국은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오더가 몰리는 양상이다. 아쉽게도 고질적인 가격 경쟁력의 열세로 동남아 지역으로 원단 오더가 많이 뺏기고 있지만 많건 적건 한국 원단밀에게도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원단밀의 오더는 이제 연말까지 꽉 차 있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면방 회사들도 연말까지 오더가 꽉 차 있어 금년 내 공급 여력이 없다.

미국의 중국 신장 위구르산 원면과 면사, 면니트 원단 제품 수입을 규제한 것도 큰 원인 중의 하나다.

그렇다고 중국이 불황이나 하면 아니다. 중국은 유럽에서 많은 오더를 받았고 자국 내수 활성화로 중국 내 염색 가공 업체마다 풀가동하고 있다.

특징은 면 니트나 면혼방 니트 원단 소재에 오더가 집중될 뿐 우분 소재는 상대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구 합섬직물 산지가 빙하기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우분 소재 수요가 꿈쩍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웃도어용을 비롯한 화섬직물 소재 의류 수요도 점차 증가하겠지만 차별화 소재가 아닌 레귤러 소재는 빈곤을 피할 길이 없다.

코로나가 몰고 온 최악의 섬유·의류 대공황은 금년으로 마감하고 얼마 남지 않은 내년 S/S 시즌부터 가장 큰 미국 시장을 필두로 다시 본격 꿈틀거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섬유 업체들이 시장 트렌드를 제대로 읽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산 FDY 3일 반덤핑 제소

밀어내기 수출 국내 안방 시장 장악 주범
화섬협회, 제소 준비 마치고 무역위원회에 정식 접수
전체 수입량의 90% 점유, 덤핑 마진 20% 기대

그동안 미루어 오던 국내 화섬 업계의 중국산 폴리에스테르사(FDY)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3일 무역위원회에 정식 접수된다.

제소자인 한국화섬협회(회장 김국진)가 회계법인과 업계 간 3자 회동을 여러 차례 갖고 무역위원회가 요구한 몇 가지 보완 서류를 마치고 3일 무역위원회에 정식 접수키로 했다.

중국산 FDY(필라멘트사)의 무차별 밀어내기 수출로 국내 반입량이 폭증해 국내 화섬 산업이 안방 시장을 내주고 생사기로를 해매고 있어 반덤핑 관세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공멸 위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산 FDY 수입은 지난해 5

만 7750톤에 달해 전체 수입량 6만 2440톤의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중국산 FDY 수입량은 전년의 3만 3658톤과 비교해 58%나 급증했고 가격 또한 전년대 20% 가까이 저가로 투매해 국내 수요자들이 중국산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만 금년 상반기 중에는 중국산 FDY 수입량이 2만 6394톤으로 작년 동기보다 4%가 감소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전 세계 수요와 공급망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섬협회의 반덤핑 제소를 접수한 무역위원회가 국내 산업 피해를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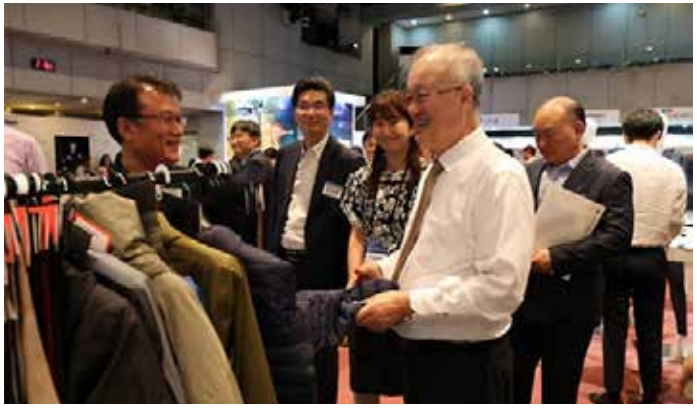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2020 수요 맞춤형 신소재 컬렉션 ‘친환경 · 지속가능’에 올인

11월 18일 섬유센터 3층 ‘수요 맞춤형 신소재 컬렉션’이 이달 18일 섬유센터 3층에서 개최된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불투명했으나 원사, 소재 업체들의 개최 요구를 수렴해 (오프라인)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존(Zone)’에서는 스포츠 및 애슬레저용 경편 니트, 아우터용 마이크로 메모리 우븐 소재 등 프리미엄 타겟을 겨냥한 고부가가치

패션 신소재 시제품을 선보인다. ‘지속가능 존’에서는 리사이클 PET, 천연유래 재생섬유 등 친환경, 리사이클 소재로 다양화된 지속가능성을 모색한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PET, 오가닉코튼 등 고기능성 원사 및 소재를 소개하는 ‘화섬면방 존’과 ICT 기술이 융합돼 스마트 기능을 구현한 ‘e-Textile 존’도 설치될 계획이다. 주최측은 행사 성과를 높이

기 위해 코로나시대 신 생존 키워드인 ESG(환경보호 사회 공헌 윤리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재활용 소재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대거 선보이기로 했다. 글로벌 재생섬유 개발 동향, 친환경 합성섬유 개발 현황, 3D 시스템을 활용한 패션제조 및 마케팅을 소개하는 ‘글로벌 리테일러 신소재 분석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섬산련은 현장 참석자를 최초로 통제하는 한편 엄격한



▲ 2020 수요 맞춤형 신소재 컬렉션이 11월 18일 섬유센터 3층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수요 맞춤형 신소재 컬렉션 모습.

방영 수칙을 지킬 예정이다. 또 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섬산련 유튜브 채널인 KOFOTI TV를 통해 온라인 세미나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요 맞춤형 신소재 컬렉션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한국섬유수출입조합이 공동 개최한다.

제7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 작품명 : Now we miss you 최주연 작



▲ 작품명 : 가든파티 노시현 작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9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 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 · 패션 · 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 · 육성과 관련 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 · 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 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파인트리 재봉사



신환경 수성본드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 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1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g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

제30회 한국 섬유·패션 대상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역 18選

‘온라인·친환경·ICT융복합’ 기업들 두각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와중에 ‘

한국 섬유패션대상’이 올해로 30회를 맞았다. 우리 섬유패션 기업들의 브랜드 가치 향상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해 한국섬유신문이 1991년 제정한 이 상은 매년 횡수를 거듭하면서 업계 최고의 권위와 위상을 가진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2020 한국섬유패션대상’은 총 18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굴했다. 최근 코로나19가 몰고온 변화와 시장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저력을 발휘한 곳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마케팅으로 불황의 파고를 넘고 소비자 인식 변화에 따라 친환경을 앞세운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한정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기업도 다수 선정됐다

올해 런칭 50주년을 맞은 학생복 브랜드 ‘엘리트’를 보유한 형지엘리트는 해외시장개척 분야에서 단연 돋보이는 성과

투트랙’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종합패션 에이전시 기업인 아이디얼피플은 한국 패션디자이너와 해외 시

튜디오스로 주목받는 기업이다.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두타점에 이어 스타필드 하남점까지 오픈하는 등 빠른 속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스타트업 부문의 옴니버스 역시 검색 시솔루션으로 개인 맞춤형 패션 시장의 미래를 준비

하고 있다.

국내 전통 한지를 이용한 식물성 패션소재 ‘하운지’를 개발한 한원물산과 친환경 데님 워싱 가공기술을 보유한 신진위상은 각각 친환경 부문상을 받았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은 마리오아울렛, 3040세대를 위한 애슬레저룩을 표방하는 망고스틴은 각각 유통과 유망애슬레저 부문 수상자로 결정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시상식을 열지 않는다. 그 대신 브랜드 가치 향상과 우수기업 발굴이라는 행사 취지를 살려 나가기 위

해 수상 기업들의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분석하는 ‘2020 한국섬유패션대상’ 시상전이 매호 펼쳐질 예정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좌로부터 노희찬 회장(삼일방), 최병오 대표(형지엘리트), 리차드천 대표(아이디얼피플)



▲ 좌로부터 신대영 대표(스타웍스컴퍼니), 이미숙 대표(니드린), 홍성열 회장(마리오소핑)



▲ 좌로부터 정현 대표(렙쇼메이), 배수향 대표(한봄), 제임스박 대표(게스홀딩스 코리아)



▲ 좌로부터 이욱희 대표(두진양행), 명유석 대표(밀앤아이), 문인식 회장(힙합퍼)



▲ 좌로부터 광희경 대표(여미지), 고태경 이사(인디에프), 김좌성 대표(망고스틴)



▲ 좌로부터 정우한 대표(한원물산), 김광수 대표(신진위상), 전재영 대표(옴니버스)

를 내고 있다. 국내 학생복시장을 석권한 형지엘리트는 2016년 일찌감치 중국으로 눈을 돌려 연 20조원에 이르는 현지 교복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상해 북경 등 핵심도시에 직영점을 두고 다른 곳은 대리상을 통해 중국 전역을 커버하는

장을 잇는 교도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 마케팅이 강화되는 흐름을 반영, 다수의 관련 기업들이 수상자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패션테크부문을 수상한 밀앤아이는 위드인24(WITHIN 24) 올스

도전을 펼치고 있다. 가상피팅 체험존, 3D 바디 스캐닝 등 최신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빛을 보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부문의 힙합퍼는 올들어 전년대비 700%의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하며 온라인소핑물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29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eva-mendat

Giant EXPRESS

Best Quality
Fast Delivery



골든구스

도산공원 초입에 플래그십스토어를 열었다. 브랜드의 시작과 미래를 보여준다. '골든 매니페스토 전시회'는 아르헨티나 여행에서 영감을 얻은 새 컬렉션도 전시한다

루부탱

충격흡수 안창과 여유로운 내부구조를 가진 루비샤크 스니커즈 컬렉션이다. 70년대 트랙슈즈에서 영감을 얻어 오버사이즈 솔을 디자인했다.



[주요 브랜드 2020 광고 촬영 스토리] 당신의 가을 옷장을 채울 옷은?

버커루

한국인 체형을 반영한 12가지 데님 핏을 구현한 제품군을 주력상품으로 추천한다. 해외 사이즈보다 다리 기장을 조금 줄이고, 무릎선은 올렸다.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4. 20 kgf/cm² 중고압 콤프레셔 취급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